

한·중 의태어 어순 비교 연구

--한국의 AXBX형과 중국의 XAXB형을 중심으로

손해서* · 채영희**

〈목 차〉

- I. 서 론
- II. 의태어의 개념과 종류
 - 1. 한중 의태어 개념
 - 2. 한중 의태어 종류
- III. 한국 AXBX의태어와 중국 XAXB의태어 어순
 - 1. 음운론적 구조
 - 2. 어휘론적 구조
 - 3. 한중 의태어의 이동
 - 4. 한중 의태어의 관계
- IV. 결 론

I. 서 론

언어는 의미와 형식을 지닌 기호이다. 모든 언어가 자의적이라는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모국어 화자에게 의성어와 의태어는 의미와 형태의 유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어 어휘는 한자어가 69.32%를 차지하고 있고, 외래어가 6.28% 차지하고 있으며, 고유어가 24.4%정도라고 하고 있다. 한국어 어휘 중 25% 정도만이 고유어인데 그 중 의성어와 의태어가 고유어 영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교신저자)

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채완(2003)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는 한자어에 빼앗기지 않은 고유어의 마지막을 영토이면서 국어 어휘의 특징적인 면을 여러 가지로 보여 주는 소중한 어휘재”라고 했다. 의태어는 형태를 나타내는 말로 어느 나라 언어에서도 흔히 쓰이는 것이며 언어의 생동감, 미감, 직관성 등을 나타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구어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에 언어의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많이 쓰인다. 의성어는 실제의 소리를 모방하여 언어화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는 것과 실제 소리 간에 필연적인 유연성(有緣性)을 지닌다.

언어의 표현 효과를 강화하고 사물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의태어가 많이 사용된다. 의태어를 통해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가지 사물의 형태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의태어를 쓰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있어 세밀한 느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 (1) ㄱ. 그는 슬금슬금 접근하고 있다.
 ㄴ. 그는 접근하고 있다.

이 두 문장은 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1, ㄱ)에서는 의태어 ‘슬금슬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1, ㄴ)보다 사람의 동작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 느낌을 준다. 중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2) ㄱ. 他大搖大擺地朝我們走過來.(그는 우리 쪽으로 건들건들 걸어왔다.)
 ㄴ. 他朝我們走過來.(그는 우리 쪽에 걸어왔다.)

이 두 문장 다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 문장들이다. (2, ㄱ)는 의태어를 통해 사람의 걷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의태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자기의 감정을 잘 전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청자는 의태어가 있는 문장에서 상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의태어를 잘 구사할 경우 언어 표현 실력을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성 의태어가 韓·中 언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다. 한국에서는 의성 의태어의 형태 음운론적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의태어가 반복을 통해 형태를 확장해온 사실이 주목 받고 있다.(손달임:2012:2) 그러나 중국어는 의태어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관련 연구가 한국처럼 발달하지 않고 최근예야 비교언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의태어라는 개념을 쓰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韓·中 언어 교류의 영향을 받아 韓·中 의태어에 관련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이러한 자료들에서는 의태어와 의성어를 함께 다루거나 음운, 의미, 형태, 통사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 많다. 어순의 측면에서 보면 거의 다 문장 구성의 순서로 진행한 것이 많고 단어의 어순 및 의태어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다. 蘇聰¹⁾(2012)에서는 한국어 중성의 원리에 의거하여 중국 의태어 성조 어감을 분석했지만 실제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편이다. 韓·中 두 언어는 계통을 달리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韓·中 어느 한 언어 원리를 기준으로 공통점을 찾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제2 언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경우 의성, 의태어를 잘 구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의성 의태어는 어휘 자체의 어순이 복잡해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싱글빙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성 의태어를 접촉한 외국인이 ‘빙글싱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싱글빙글’이라는 단어 있지만 ‘빙글싱글’이라는 단어가 없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이다. 앞에 예문에 나오던 ‘大搖大擺’를 잘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大擺大搖’라는 어휘가 없다.

한국에서 ‘AXBX’와 같이 어순이 고정된 의태어가 많고 중국에서도 ‘XAXB’처럼 어순을 도치할 수 없는 의태어가 있다. 어순이란 것은 주로 언어 습관에 의거하고 있지만 전체 어휘를 분석하면 언어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기술의 편의를 위해 한국의 ‘싱글빙글’과 중국의 ‘大搖擺’ 각자 ‘AXBX’와 ‘XAXB’로 표시할 것이

1) 蘇聰, 〈韓中擬聲擬態詞對比研究〉 중국 青島大學 석사논문, 2012年, 26쪽.

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韓·中 두 언어의 다름을 고려하여 의태어의 어순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채완(2003)에 나타난 AXBX식 의태어 102개와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1983)에 수록된 ‘不B不C’, ‘有B有C’, ‘大B大C’ 등 종류의 ABAC식 형용사²⁾ 52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한·중 의태어의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어 AXBX형과 중국어 ABAC형 의태어의 어순은 고정화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국 AXBX형 의태어를 CBAB형으로 쓸 수 없는 것처럼 중국어 ABAC형 의태어 또한 ACAB형으로 바꿀 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이 글에서는 한중 두 언어 의태어 어휘 중 유사한 형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형태를 반복하는 경우와 음운의 일부 요소를 변형하여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비교를 해볼 것이다.

물론 중국어에서도 한국어의 의태어와 같이 AXBX형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現代漢語詞典》에서 ‘有一得一(yǒuyīdéyī)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있는 그대로’라는 단어의 경우나 사람들이 자주 쓰던 ‘有一說一, 有二說二(있는 그대로 말한다)’라는 말이 다 이런 형식이다. 여기서 ‘有’, ‘得’, ‘說’ 다 동사이고 대명사 ‘一’, ‘二’하고 ‘술목’구조화 되었다. 그리고 의미적인 면에서 ‘有’와 ‘得’ 및 ‘有’와 ‘說’은 선후 순서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AXBX식 어휘들이 보통 의태어와 같은 기능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고 XAXB식 의태어만 연구대상으로 정한다.

II. 의태어 개념과 종류

1. 한중 의태어의 개념

의태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스 어 ‘onomatopoeia’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물이나 행동의 형태를 모방 표현한다는 말이다. 오노마토어는 그리스어의 ‘이름(onomat)’과 ‘만들다(opoeia)’가 결합된 형태로, 인구에

2) 중국에서는 의태어가 보통 형용사에 속하기로 정하고 상관 연구들이 다 형용사의 입장에서 진행한다.

에서는 주로 실제 세계의 소리를 따라 만든 낱말을 의미한다(강인선, 1993:5) 그런데 영어권 사전의 경우 의성어에 대한 설명만이 있을 뿐 의태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에는 흔히 의성어와 의태어를 함께 다루는데 ‘의성어, 의태어’ 이외에 ‘음성상징어, 흉내말³⁾, 시늉말, 상징어, 상징부사’ 등의 용어로 불리어졌다. 기존 연구에서도 의성어와 의태어를 정의에 있어 ‘모방, 시늉, 흉내, 상징, 본뜨다’와 같은 용어들이 많이 쓰인다.

《새 우리말 큰 사전》(1986)에서 의태어는 사물의 모양이나 대도, 행동 등의 양태를 묘사한 말로 ‘꼬불꼬불, 아장아장, 허위적 허위적’ 등을 ‘짓시늉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윤희원(1993:14)은 “의태어란 시각 영상을 청각 영상으로, 그리고 그 청각 영상을 분절음으로 바꾸어 나타냄으로써 만들어진 낱말”이라고 했다. 박동근(1997:4)은 “흉내말은 자연계의 소리를 그와 유사한 음성으로 모방하여 관습화된 ‘소리흉내말’과 소리 이외의 모양이나 상태를 특정한 음운으로 모방했거나, 모방했다고 인식되는 ‘모양흉내말’을 두루 일컫는 국어의 특수한 낱말군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신중진(1998:8)은 “의성의태어는 소리나 모양을 언어형식으로 본떠서 표현화된 것으로 그 언어의 음운체계에 속하는 일정 부류의 자음이나 모음이 교체되어도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뉘앙스 차이만 갖는 자립 어휘소이다.”라고 하였으며, 채완(2003:17-22)은 “의태어도 일반 상태성 어휘와 마찬가지로 그저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며, 음성과 의미의 자의

3) 흉내말은 자연계의 소리를 그와 유사한 음성으로 모방하여 관습화 된 ‘소리 흉내말’과 소리 이외의 모양이나 상태를 특정한 음운으로 모방했거나, 모방했다고 인식되는 ‘모양흉내말’을 두루 일컫는 국어의 특수한 낱말군이다.

4) 안인숙, 〈의성어 의태어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p.56 참조.

《우리말 큰 사전》(1992)에서는 “의태어란 사물이 움직이는 것이나 모양을 흉내 내어 하는 말로 ‘간들간들’, ‘꼬불꼬불’ 따위를 이른다.”

《국어학 언어학 용어 사전》(1994)에서 의태어는 사물의 동작이나 모양을 음성 연속을 빌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을 이른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이다.”

《연세한국어사전》(1999)은 “의태어는 ‘방울방울’, ‘꾸벅꾸벅’ 따위와 같이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내어 만든 말이다.”

적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안인숙(2007)은 “의태어는 청각이외의 감각정보를 언어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분절로 바꾸는 낱말군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의태어에 대해 정의한 바를 정리하면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임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는 중국에 있는 사전이나 번역 자료에서 의성어는 ‘擬聲詞’ 혹은 ‘象聲詞’라고 번역해서 한국어 의성어와 대응관계가 있다. 한국어 의태어와 대응하는 중국어는 ‘象形詞’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어에는 ‘象形詞’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⁵⁾. 또한 한국어 의태어를 그대로 번역한 중국어는 擬態語이며 擬態語라는 용어는 한·중 의태어 대조나 중·일 의태어 대조에 관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중국어 사전이나 논저에서 찾지 못했다. 한국어 의태어의 기능과 대응하는 어휘는 보통 중국어에서 형용사와 성어(成語)로 사용하고 있다. 《現代漢語》(2002)에는 형용사는 성질과 상태를 표현하는 어휘라고 하고 성질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성질형용사이고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는 상태형용사라고 한다. 朱德熙(1956, 1982)에는 현대 중국어 형용사는 간단한 형식과 복잡한 형식을 나눈다. 간단한 형식형용사는 성질형용사이고 복잡한 형식형용사는 상태형용사라고 한다. 의미면에서 볼 때, 성질형용사는 단순히 사물 속성을 표시하고, 상태형용사는 사물에 대하여 명백한 묘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상태형용사를 제의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였다. 耿二嶺(1986)에서 중국어 의성어와 의태어의 품사 종류에 대해 의태어는 형용사에 속하고 의성어는 부사, 형용사, 감탄사, 그리고 따로 나뉘야 되는 특수사류(特殊詞類)에 속한다고 보았다. 黃萱(1990)에서는 한국어 의태어와 대응할 수 있는 용어로 묘사라는 단어를 제시하였다. 그 표현 대상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5) 《現代漢語詞典》(1983): 象形詞是模倣人或事物的動作和狀態的詞. 如: 亮晶晶, 笑呵呵(상형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과 상태를 모방하는 말로 정의하고 반짝반짝, 싱글벙글 등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成語是人們長期以來習用的, 形式簡潔而意思精辟的, 定型的詞組或短語. 漢語的成語大多由四個字組成, 一般都有出處(성어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습에 따라 사용해온 것이다. 형식은 간결하나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반영하고 있는 정형화된 구이며, 중국어 성어는 일반적으로 4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출처가 있다.)

촉각 등으로 세분화한다. 劉月華·潘文娛·故韋華(2005)에서 중국어의 형용사는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로 나눈다. 상태형용사는 사물의 양태를 표현하며 묘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중첩형용사는 상태형용사의 구성형식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趙惠(2006)에서는 생동형용사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는데 현대 중국어의 생동 형용사는 글자 중첩, 접미사 등의 방식으로 실현되며 이런 형용사가 더 생동적으로 사물을 묘사할 수 있다고 했다. 張婷(2008)에서는 의태어를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물의 형태나 모습을 묘사하는 말로 정의하였다.

이상 韓·中 의태어 개념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는 의태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 정의가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으나 중국어의 의태어는 상태형용사로 분류되고 연구나 정의가 한국의 경우보다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한 중 두 나라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개념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을 묘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글에서는 한중 두 어휘 중 용어를 통일하여 의태어로 하기로 한다. 아주 가끔 한국어에서는 의성어를 의태어로 겸용한 것이 있다.

- (3) ㄱ. 물이 줄줄 흐른다.
- ㄴ. 말이 줄줄 나온다.

(3, ㄱ)에서는 ‘줄줄’을 의성어로 볼 수 있지만 (3, ㄴ)에서는 의태어이다. 한국어에 이러한 사물 사이에 비슷함을 이용하여 의성어를 의태어로 사용한 경우 흔히 보인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2. 한·중 의태어의 종류

가. 음운적

한국어 표음문자로서 음절이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며 모음은 양성파 음성 두 가지 있고 자음은 평음, 경음, 격음으로 나눌 수 있다. 모음은 일반적으로 양성모음(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과 음성모음(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 의태어는 양성모음

과 음성모음에 따라 어감과 의미가 달라진다. 양성모음에 의해 밝음, 가벼움, 작음, 예리함, 옹음, 빠름, 강함, 맑음의 어감을 주는 가하면, 음성모음에 따라 어두움, 무거움, 큼, 둔함, 두터움, 더딤, 약함, 탁함의 어감을 느끼게 한다⁶⁾.

- (4) ㄱ. 그 아이는 겨우 한 돌이면서 온 테를 아장아장 걸어 다닌다.
 ㄴ. 그 사람은 어정어정 걸어온다.

(4)에 나온 ‘아장아장’이 사전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이나 짐승이 이리저리 찬찬히 걷는 모양’라고 ‘어정어정’은 반대로 ‘키가 큰 사람이나 짐승이 이리저리 천천히 걷는 모양’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뜻풀이는 양성모음보다 음성모음이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 (5) ㄱ. 綠油油的麥苗(싱싱한 초록빛 싹)
 ㄴ. 綠茵茵的草坪(파릇파릇한 잔디밭)

(5)에 나온 ‘綠油油(lǜyóuyóu)’와 ‘綠茵茵(lǜyīnyīn)’이 다 녹색을 표시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빛이 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 생기 찬 느낌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어도 한국어처럼 모음(운모) 변화에 의해 어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綠幽幽(lǜyōu yōu)’는 ‘綠油油’와 같은 발음이지만 ‘綠幽幽’는 밤에 동물들의 분 혹은 도깨비불 같은 사물을 묘사한다. 따라서 중국어는 고립어이어서 의태어의 표시가 근본적으로 어소가 결정하고 한국만큼 음운적으로 어감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 통사적

한·중 의태어가 통사적 측면에 보면 다 부사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어 의태어는 ‘의태어+동사’의 형식으로 동사를 수식하고 중국어 의태어는 직접 동사를 수식할 뿐만 아니라 때로 ‘의태어+地+동사’의 형식으로 사용한다.

6) 정인승, 《모음상태법칙과 자음가세법칙》, 한글6-9, 동권60. 1938. 참고

- (6) ㄱ. 그는 허둥지둥 도망쳤다.
 ㄴ. 他連滾帶爬(地)逃跑(그는 허겁지겁 도망쳤다).

(6)에서는 한국어 문장은 ‘의태어+동사’의 순서로 구성하고 의태어 ‘허둥지둥’은 후행하는 동사 ‘도망치다’를 수식하는 부사어 기능을 담당한다. 중국 문장은 ‘의태어+동사’ 혹은 ‘의태어+地+동사’ 두 가지 다 가능하고 ‘連滾帶爬(liángǔndàipá)’은 뒤에 동사 ‘逃跑(도망치다)’를 수식한다.

또한 한·중 의태어는 모두 문장의 관형어가 되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한국어 의태어는 접미사 ‘-하다, -거리다, -대다, -이다’를 붙이고 관형어 기능을 담당한다. 중국어 의태어는 보조사 ‘的’을 결합하여 뒤에 명사를 수식한다.

- (7) ㄱ.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긴다.
 ㄴ. 金燦燦的陽光灑滿大地(금빛 찬란한 햇빛이 온 대지를 비추다)

한·중 의태어가 다 서술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어 의태어는 단독으로 서술어의 자리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접미사 ‘-하-’, ‘-거리-’, ‘-이-’와 결합하여 서술어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 의태어가 서술어로 사용할 때 보통 뒤에 보조사 ‘的’을 붙인다.

- (8) ㄱ. 이 노래의 곡조는 나긋나긋하다.
 ㄴ. 屋子里亂糟糟的(방안에는 엉망으로 어지럽다)

한·중 의태어의 차이점은 중국어에서는 의태어가 목적어와 보어의 성분으로 기능할 수도 있으나 한국어 의태어는 그렇지 못하다. 예를 보면, 我喜歡亮晶晶的(나는 반짝반짝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문장에 의태어 ‘亮晶晶’이 보조사 ‘的’을 붙이고 명사 성분으로 변화하여 목적어가 되었다. 走路慢吞吞的(느릿느릿 길을 걷다)에서는 의태어 ‘慢吞吞’가 동사 ‘走(걷다)’의 보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 의태어의 특징 중 하나는 반복형으로 쓰이는 점이다. 중국에 연구를 따르며 많은 학자들은 중첩형용사(重疊形容詞)라는 용어를 많이

쓰이는 것을 보인다. 의태어가 외형상 일반 어휘가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반복의 형태로 쓰이는 일이 많다는 점일 것이다. 의태어의 경우는 단독으로는 단어가 되지 못하고 반복됨으로써 자립성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의태어는 단독형으로 단어가 되는 경우 대부분 자유롭게 반복형을 구성한다⁷⁾.

채완(2003)에서는 반복 기준으로 의태어를 분류하였다. 반복형은 어기 전체가 반복되는가, 어기 일부가 반복되는가에 따라 전체 반복과 부분 반복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어기의 형태가 그대로인가어기의 일부가 변하여 반복되는가에 따라 동음반복과 유음반복으로 바꿀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의태어라는 용어가 잘 쓰이지 않는데, 중첩형 형용사라는 개념이 의태어에 해당되고 있다. 중첩형용사의 구성 형태는 주로 AA형, ABB형, AABB형, ABAB형, A里AB형⁸⁾ 등이 있다. 또한 張婷(2008)에서 분석하던 ‘ABAC’형 사자어(사자성어)이라 일컫는 熟語, 固定語⁹⁾는 의태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不干不淨, 有板有眼, 大搖大擺 등 있다.

아래 <표1,2>를 보면 한·중 의태어는 형태로 보아서는 서로가 거의 대응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단독형 측면에는 음절수의 차이가 있고 파생형에는 한국의 경우가 종류가 많고 복합형에는 중국의 경우가 한국보다 종류가 많다. 부분반복은 중국의 경우가 많고 한국의 동음반복과 중국의 전체반복이 서로 대응하고 한국의 유음반복과 중국의 추가반복은 두 언어에 모두 나타난다. 이 두 가지 특별한 내용을 제외하면 한·중 의태어가 종류면에서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중 ‘A+X+AB식’은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석하지 않고 남은 ‘X+A+X+B식’과 한국 유음반복 두 가지 의태어의 어순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7) 채완(2003:56),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8) A里AB형은 현대 중국어에서 보통 AB식 형용사의 반복방식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糊塗, 糊里糊塗등.

9) 固定語는 고정된 하나의 단위로 사용되므로 마음대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없고, 일반적인 조어방법으로 분석할 수도 없다.

<표 1> 한국어 의태어 종류와 예문

단독형	1음절	A식: 꼭	
	2음절	AB식: 달짝	
	3음절	ABC식: 꼬부랑	
	4음절	ABCD식: 양가조춤	
반복형	전체반복	동음 반복	AA식: 감감, 슬슬
			ABAB식: 아장아장, 반짝반짝
			ABCABC식: 두리번두리번, 어슬렁어슬렁
		유음 반복	모음교체 ¹⁰⁾ 식: 싱송생송, 비들배들
			자음교체 ¹¹⁾ 식: 울뚝불뚝, 알콩달콩
			음절교체 ¹²⁾ 식: 다짜고짜, 흥청망청
	부분반복	ABCC식: 버지르르, 알금삼삼	
복합형	AB+ CD식: 얼렁뚱땅, 알랑뚱땅		
파생형	AB+ 접미사식: 반짝거리다		

<표 2>중국어 의태어 종류와 예문

단독형	2음절	AB식: 蒼茫(cāngmáng)
	4음절	ABCD식: 稀里糊塗(xīlihútú)
반복형	전체반복	AA식: 翩翩(piānpian)
		AABB식: 花花綠綠(huāhuālǜlǜ)
		ABAB식: 扑棱扑棱(pūlēngpūlēng)
	부분반복	ABB식: 赤裸裸(chīluǒluǒ)
		AAB식: 欣欣然(xīnxīnrán)
		ABCC식: 威風凜凜(wēifēnglǐnlǐn)
		CCAB식: 滔滔不絕(tāotāobùjué)
		ABCB식: 倚老賣老(yǐlǎomàilǎo)
		ABCA식: 微乎其微(wēihūqíwēi)
	추가반복	A+X+AB ¹³ 식: 傻里傻氣(shǎlishǎqi),
		X+A+X+B ¹⁴ 식: 善始善終(shànshǐshànzhōng)
복합형	AA+B식: 團團轉(tuántuánzhuàn)	
	B+AA식: 亮晶晶(liàngjīngjīng)	
	AB+CD식: 酩酊大醉(mǐngdǐngdàzui)	
	AC+BD식: 東拼西湊(dōngpīnxīcòu)	
파생형	A+然식: 欣然(xīnrán)	

한국의 유음반복 의태어는 두 번째와 네 번째에 같은 글자가 나타나

- 10) 한국어 의태어는 모음 교체에 따라 의미와 어감에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 실룩실룩, 티격태격 등.
- 11) 자음 교체형: 한국어는 자음을 평음, 경음, 격음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서대로 변해가며 의미가 강조된다. 예: 울긋불긋, 알쏭달쏭 등
- 12) 음절 교체형: 예를 들어 들락날락, 오락가락, 싱글병글 등
- 13) A+X+AB식 의태어에 'X', 'AB'는 한국어의 'AB+ 접미사'식 의태어의 접미사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 14) X+A+X+B식 의태어에 AB가 현대 중국어에서는 한 단어로 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不干不淨에 干淨, 동시 한 단어로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有板有眼的 板眼이다. 그리고 X가 보통 不, 有, 太, 一, 如, 人, 自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 때문에 한국 유음반복 의태어를 ‘AXBX’식으로 표시하며 중국의 ‘A+X+X+B식’을 ‘XAXB’식으로 표시하면 둘이 다 같은 글을 쓰던 것을 쉽게 파악한다. 한국의 ‘AXBX’가 ‘BXAX’로 중국의 ‘XAXB’가 ‘XBXA’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단어의 어순 문제가 ‘언어습관으로 보기도 하지만 습관으로만 보고 언어현상을 다루기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과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III. 한국 AXBX 의태어와 중국 XAXB 의태어 어순

언어란 인류의 사유표현형식으로 정보와 사상이 담긴 결정체이다. 언어의 생산에는 두개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대뇌와 발음기관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사고능력과 복잡한 소리를 조합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고학자와 인류학자가 옛사람들의 발음기관을 해부한 결과 4,50만 년 전에 구두 언어가 나타났고, 최초의 단어가 창조되었다고 본다. 대뇌발육과 발음기관의 제한으로 인해 옛 인류의 단어는 감탄사 정도일거라 추정된다.

병음문자는 소리와 뜻의 결합체로 그 기초는 ‘음과 뜻의 결합¹⁵⁾’이다. 대뇌와 신체의 진화에 따라, 후두발음의 크기, 높이, 장단 변화의 종류가 점차 증가하면서, 구강, 혀, 이빨, 입술이 후음에 대한 제어능력이 점차 정교해지고, 대뇌의 논리사유능력과 지배능력이 동시에 제고되어 인류가 내는 소리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사람이 교류해야 하는 정보내용도 점차 많아지고 언어를 기록하는 문제 또한 많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글자가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같은 음이 다른 글자에 대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운론적 구조

15) 음으로 뜻을 표시하고 뜻이 다르면 다른 음으로 사용하여 그 뜻을 표시한다. 즉 다른 어음 형태와 음절로 여러 가지 의미를 표시한 규칙이다. 卽以音表意、意不同音就不同, 用不同的語音樣式和不同的音節來表示不同語意的規則

한국어의 모음과 자음을 순서대로 나열하다.

위에 나열한 음성에 따라 한국 ‘AXBX’의태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A와 B는 모임이 같다.

ㄴ. A와 B는 모임이랑 받침이 다 같다.

알: 알근달근, 알록달록, 알쏭달쏭, 알뜰살뜰, 알콩달콩,
어: 어근버근, 어금버금, 어룅더룅, 어정버정, 어칠비칠, 어슷비슷,

어영부영,
 언: 언거번거, 언죽번죽, 언틀먼틀
 얼: 얼기설기, 얼룩덜룩, 얼멍덜멍, 얼쑹덜쑹, 얼키설키,
 엄: 엄병덤병,
 울: 울강불강, 울긋불긋, 울근불근, 울룩불룩, 울쑹불쑹, 울망줄망,
 울퉁불퉁,
 울: 울근불근, 울퉁불퉁, 울룩불룩, 울렁출렁, 울랑출랑, 울쑹불쑹,
 울통불통,
 웅: 웅기중기,

ㄷ. A와 B는 모음이 다르지만 받침이 같다.

옥: 옥신각신,
 옥: 옥실덕실→옥실득실

ㄹ. A와 B는 모음이랑 받침이 다르다.

애: 애걸복걸, 애면글면,
 안: 안달복달, 안절부절,
 왜: 왜뜰삐뜰,

2) A와 B는 다 자음 있는 경우:

ㄱ. A와 B는 모음이 다르지만 받침이 같다.

갈광질광, ‘갈’과 ‘질’의 받침은 모두 받침 ‘ㄱ’이고 모음에 보면
 ‘아’가 ‘이’ 보다 먼저 나타나 단어 ‘갈광질광’으로 쓰인다.

ㄴ. A와 B는 모음이 다르면서 B만 받침이 있다.

뒤죽박죽, ‘뒤’와 ‘박’의 모음은 각각 단모음 ‘위’와 단모음 ‘아’이므로
 사용하고 있다. 단모음 ‘아’가 단 모음 ‘위’ 앞에 놓여야 하는데 ‘박’에
 받침 ‘ㄱ’이 있어서 뒤에서 놓였다. 그래서 단어 ‘뒤죽박죽’으로 쓰고
 있다.

ㄷ. A와 B는 받침이 다 없지만 B의 모음이 모음 표에 뒷부분에 있다.

‘귀락퍼락’에 단모음 ‘위’가 이중모음 ‘여’보다 앞자리에 있다.

‘다짜고짜’에 ‘아’가 ‘오’의 앞에서 나열하고 있다.

‘허겁지겁’과 ‘허둥지둥’에 ‘이’보다 ‘어’가 먼저 나열한다.

나. 중국어

중국어의 모음과 자음의 순서이다.

단모음: a, o, e, i, u, ü

이중모음: ai, ei, ui, ao, ou, iu, ie, üe, er, an, en, in, un, ün,

삼중모음: ang, eng, ing, ong

개모 있는 경우: ia, iao, ian; ua, uai, uan, uo,

자음: b, p, m, f, d, t, n, l, g, k, h, j, q, x, zh, ch, sh, r, z, c, s, y, w

위에 나열한 음성에 따라 중국 ‘XAXB’의태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A와 B의 모음이 완전히 똑 같지만 자음이 다르다.

有板有眼(yǒubǎnyǒuyǎn), 不離不弃(bùlíbúqì)

모음이 같으면 자음 순서대로 정하는 경우이다.

2) A와 B는 모음 종류가 같은 경우:

ㄱ. A와 B 다 단모음이다.

不破不立(búpòbùlì)

ㄴ. A와 B 다 이중모음이다

不肥不瘦(bùféibúshòu),

3) A와 B는 모음 종류가 다른 경우:

ㄱ. A는 단모음이고 B는 이중모음이다.

大是大非(dàshìdàfēi), 大慈大悲(dàcí dàbēi), 不知不覺(bùzhībùjué), 不理不睬(bùlǐbùcǎi), 不依不饒(bùyībùráo), 不屈不撓(bùqūbùnáo), 不折不扣(bùzhébùkòu),

ㄴ. A는 단모음이고 B는 삼중모음이다.

有始有終(yǒushǐyǒuzhōng), 大模大樣(dàmúdàyàng),

ㄷ. A는 이중모음이고 B는 삼중모음이다.

不干不淨(bùgānbùjìng), 不卑不亢(bùbēibùkàng),

4) A와 B는 모음 종류가 다르면서 B에 개모음 있는 경우:

ㄱ. A는 이중모음이다.

不聲不響(bùshēngbùxiǎng), 不方不圓(bùfāngbùyuán),

ㄴ. A는 삼중모음이다.

不上不下(búshàngbúxià), 有頭有臉(yǒutóuyǒuliǎn),

2. 어휘론적 구조

어휘는 음과 의미의 결합체-문자로 만들어진다. 어휘 생성 역사를 보면 후기에 생산하던 어휘들이 분명히 기존 생성된 어휘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 AXBX식과 중국 XAXB식 의태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휘 생산 방식에 따라 현재의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어 AXBX식 의태어가 앞 음절 AX와 뒤 음절BX는 감정적인 방면에서 강약의 정도를 지니고 일반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띄거나 AX의 생산력이 BX보다 강하다. 그러나 시간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면서 의태어의 앞뒤 부분 중 하나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도 흔히 보인다.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애초에는 각 한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언어가 발전하면서 글자와 단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전이되거나 심지어 소멸되어 새로 만든 단어들에서는 본래 의미가 소실되었다. 예를 들면 형용사 ‘明白(명백)하다’의 ‘明’과 ‘白’이 《現代漢語詞典》에서 다 ‘明白(알다/이해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단어 ‘明白’이 의태어 ‘不明不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不明不白’은 형용사 ‘明白’ 사이에 부사 ‘不’를 반복하여 만들어졌다. 형용사 ‘明白’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습

관에 따라 의태어 ‘不明不白’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기존 어휘 영향의 분석은 의미뿐만 아니라 또 음절이 변형시킬 수 있는 조어능력이 강한 여부에 달려있다. 보통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어능력이 강한 음절이나 의태어의 전체 의미와 더욱 가까운 음절이 AX위치에 놓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어의 경우

첫째, 조어력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다.

ㄱ. 모음 이 → 우

시들부들 → 시들거리다, 시들하다, 시들다, 시들시들

ㄴ. 모음 이 → 아

진탕만탕(-宕-宕) → 진탕(-宕)

ㄷ. 모음 으 → 아

들락날락 → 들락거리다

흔전만전 → 흔전거리다, 흔전대다

홀깃할깃 → 홀깃홀깃, 홀깃거리다, 홀깃

홍청망청 → 홍청거리다, 홍청홍청

ㄹ. 모음 이 → 애

비똥배똥 → 비똥비똥, 비똥거리다, 비똥다, 비똥어지다, 비똥이

비죽배죽 → 비죽, 비죽비죽, 비죽거리다 / 배죽거리다

빼똥빼똥 → 빼똥거리다, 빼똥다, 빼똥빼똥, 빼똥어지다, 빼똥이/
빼똥어지다

싱숭생숭 → 싱숭하다

티격태격 → 티격, 티격나다

실룩실룩 → 실룩, 실룩거리다, 실룩실룩

실쭈실쭈 → 실쭈¹⁶⁾

16) 국립국어원 인터넷 사전에서 ‘실쭈’는 ‘실그러지게’ ‘썰쭈’는 ‘썰그러지게’ ‘움직이는 모양’라는 뜻이다. 다시 ‘실그러지다’와 ‘썰그러지다’ 검색하면 각자 ‘비똥어지다’와 ‘배똥어지다’로 나타난다. ‘비똥’의 조어능력이 강하기에 여기서 ‘실쭈’으로 정했다.

일긱알긱 → 일긱¹⁷⁾

둘째, 전체 의미와 긴밀 정도에 따라

뜨끔따끔 → 뜨끔(사전에서 ‘뜨끔’의 의미가 ‘따끔’보다 ‘뜨끔따끔’
과 더 가깝다.)

싱글벙글 → 싱글(‘싱글’의 의미가 ‘벙글’보다 ‘싱글벙글’의 의미와
가깝다.)

셋째, 사람이 사물에 대해 인식 혹은 사물 선후 순서에 따라

괴발개발 →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괴발’과 ‘개발’은 각자 고양이와 개의 발과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는 옛날부터 한국에 있는 다른 가축과 비슷한 동
물로 키워왔다. 고양이는 개를 키운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동
물이다. ‘물건은 적을수록 귀하다’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 ‘괴발’이 ‘개
발’보다 앞에 위치한다.

들쭉날쭉 → ‘들다’와 ‘나가다’의 반복으로 ‘들다’가 ‘나다’보다 앞에
위 치한다.

2) 중국어의 경우

‘不明不白’처럼 단어 AB가 현대 중국어에서 한 단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한 단어로 사용되지 않지만 문헌에 한 단어로 사용
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XAXB식 의태어를 만든다.

첫째, AB가 현대 중국어에서 한 단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ㄱ. X가 ‘不’로 쓴 경우

不清不楚(bùqīngbùchǔ)어리송하다. → 清楚

17) ‘일긱거리다’와 ‘알긱거리다’의 검색결과 두 가지의 의미는 각각 ‘비뚤어지
다’와 ‘배뚤어지다’로 나오기 때문에 상용 빈도 높은 ‘비뚤어지다’를 참고하여
‘일긱’으로 정했다.

不言不語(bùyánbùyǔ)아무 말도 하지 않다. → 言語
 不多不少(bùduōbùshǎo)많지 않고 적지 않다. → 多少
 不大不小(bùdàbùxiǎo)크지 않고 작지 않다. → 大小
 不慌不忙(bùhuāngbùmáng)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이르는 말.
 → 慌忙

ㄴ. X가 ‘有’로 쓴 경우

有聲有色(yǒushēngyǒusè)연기·말·동작 등이 매우 생생하다./생동감이 넘치다. → 聲色
 有血有肉(yǒuxuèyǒuròu)이미지가 생동적이고 내용이 충실하며 구체적이다. → 血肉

ㄷ. X가 ‘大’로 쓴 경우

大吹大擂(dàchuīdàléi)마구 떠벌리다./큰소리치다. → 吹擂
 大搖大擺(dàyáodàbǎi)어깨를 으쓱거리며 걸은 모습. → 搖擺

ㄹ. X가 ‘一’로 쓴 경우

一心一意(yìxīnyíyì)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일념으로. → 心意
 一針一縷(yìzhēnyíxiàn)아주 보잘것없는 재물. → 針縷
 一點一滴(yídiǎnyíyī)극소수의 양. → 點滴

ㄹ. X가 ‘人’로 쓴 경우

人來人往(rénláirénwǎng)사람들이 북적거리다. → 來往

ㅁ. X가 ‘自’로 쓴 경우

自言自語(zìyánzìyǔ)중얼거리다. → 言語

둘째, AB가 고전문헌에 한 단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不偏不倚(bùpiānbùyǐ)어느 쪽으로도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다. → 偏倚 《禮記·中庸》
 不痛不痒(bùtòngbùyǎng)일 처리가 시원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 痛痒 《中論·考偽》
 不明不暗(bùmíngbùàn)밝지 않고 어둡지 않다. → 明暗 《漢書·劉向傳》
 不管不顧(bùguǎnbùgù)사람이 거칠고 경솔하다. → 管顧 宋 王禹偁

《獨遊南靜川》

不倫不類(búlúnbúlèi)이 부류도 아니 저 부류도 아닌 듯하다. → 倫類
《荀子·勸學》

如痴如狂(rúchīrúkuáng)정신이 나가고 미친 듯하다. → 痴狂
《淮南子·俶真訓》

如泣如訴(rúqìrúsù)소리가 매우 애절하다. → 泣訴 (宋 沉作喆 《寓
簡》

人山人海(rénshānrénhǎi)모인 사람이 대단히 많다. → 山海 《史記·吳
王濞列傳論》

一步一趨(yíbùyīqū) → 남을 따라하는 모양. 步趨 《漢書·王吉傳》

셋째, 사람이 사물에 대해 인식 혹은 사물 선후 순서에 따라 XAXB
식 의태어를 형성한다.

ㄱ. 숫자의 나열한 순서에 따라

不三不四(bùsānbùsì)인품이 너절하다. → 三과 四

一五一十(yīwūyīshí)하나도 빠짐없이. → 五와 十

ㄴ. 기존 사물에 인식에 따라

一草一木(yīcǎoyīmù)평상시 물건을 이르는 말. → 花草樹木

如詩如畫(rúshīrúhuà)시의 회화적인 아름다움. → 詩詞書畫

大紅大綠(dàhóngdàlǜ)울긋불긋하다. → 紅과 綠은 ‘赤(紅)橙黃綠青
藍紫’의 순서에 부합한다.

동시에 ‘如火如荼(rúhuǒrútú)불처럼 붉고 띠꽃처럼 하얗다’의 오행에
는 ‘火’가 홍색을 표시하고 있다. ‘荼’는 ‘띠’이고 희색을 표시한다. 그리
고 홍색은 바로 ‘赤’이다. 따라서 XA‘如火’가 앞에 쓴다.

ㄷ. 사건 발생의 선후 순서에 따라

不見不散(bújiàn bùsàn)약속한 장소에서 서로 만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 見과 散

不即不離(bùjíbùlí)가까이하지도 멀리하지도 않다. → 卽과 離

自問自答(zìwènzìdá)자문 자답. → 問과 答

‘見(만나다)’ → ‘散(헤어지다)’, ‘卽(접근하다)’ → ‘離(떨어지다)’, ‘問(질문하다)’ → ‘答(대답하다)’에 선후 순서가 있다.

3. 한중 의태어의 이동

앞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AXBX형 의태어와 중국 XAXB형 의태어의 어순은 음운적으로 보면 자기 나라의 음운체계에 따르는 경향이 많다. 어휘적으로는 기존의 단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생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있던 어휘에 음운의 교체에 따라 비슷한 음절을 붙여 AXBX형 의태어를 만든다. 중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던 단어에 다른 자를 붙여 반복을 하여 XAXB형 의태어를 만든다.

그리고 두 언어의 AXBX형 의태어와 XAXB형 의태어의 어순이 각자 자기 나라 언어의 체계에 따라 음운이나 의미적인 영향의 비중이 차이가 있다. 한국 AXBX형 의태어 어순이 중국에 비해 음운적인 특징을 강한 반면에 중국 XAXB형 의태어 어순이 의미 혹은 구조 측면에 보면 더 편안하다. 채원(2003)에서는 음운 측면을 통해 한국의 의태어를 모음교체, 자음교체 등 표시하고 있다.

4. 한중 의태어의 관계

한국어의 의태어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부사이다. 의태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앞의 AX와 뒤의 BX는 각자 구체적인 의미를 지녔는데 언어의 발전에 따라 부분 의미가 없어졌다. 한국어 의태어의 AX와 BX는 애초에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물을 묘사한 형용사이었다. 따라서 한국어 조어법에 의거하면 A와 B는 ‘어간’ X는 ‘접미사’이다. 예를 들어 ‘싱글벙글’에서 ‘글’이 접미사이고 ‘싱’과 ‘벙’이 옛날에는 어간이었다. 그러나 이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괴발개발’등과 같은 의태어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거나 한자에서 유래한 단어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忽弱忽弱’에서 형태가 변하여 된 ‘호락호락’은 유연성을 상실한 경우이다. 이러한 예들은 그 어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고유어로 인식될 만큼 원어로부터 멀어졌다(채원, 2003:60). 이 관점을 증명하기 위

하여 먼저 중국어 쌍음절 단어의 구조를 분석보자고 한다.

쌍음절 중국어는 보통 ‘주술’, ‘수식’, ‘술목’, ‘술보’구조 관계이다. 본 연구에서 예문으로 쓰이던 ‘自’, ‘人’, ‘不’, ‘有’, ‘大’등 의태어의 XA와 XB는 다 이러한 형식이다. 예를 들면 ‘自’는 ‘자기’뜻이라서 뒤에 ‘言’ 및 ‘語’와 결합한 후 주술구조 성립된다. ‘人’은 명사이고 뒤에 명사 ‘山’과 ‘海’ 결합 이후 각자 수식구조 성립된다. ‘不’은 부사이며 동사 ‘管’, ‘顧’ 수식 가능하고 형용사 ‘慌’, ‘忙’ 수식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의태어 ‘不管不顧’, ‘不慌不忙’등이 된다. ‘有’는 중국어에서 동사로서 명사와 결합하면 ‘술목’구조가 된다. 예를 들면 ‘有声有色’등 의태어들이다. ‘大’는 형용사로서 명사 ‘模’, ‘樣’, 동사 ‘搖’, ‘擺’, 형용사 ‘慈’, ‘悲’를 다 수식할 수 있기에 의태어 ‘大模大樣’, ‘大搖大擺’, ‘大慈大悲’ 생겼다.

한국 AXBX형 의태어가 보편적으로 중국어처럼 구조 분석 불가능한 편이다. 그러나 한자어로 표시 가능한 경우에는 구조분석도 가능하게 된다. 애절복절(哀乞伏乞)의 경우 ‘哀’는 ‘애절하다’라는 뜻이고 ‘伏’은 ‘땅에 엎드리다’라는 뜻이며, ‘乞’은 ‘빌다, 애원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哀乞’은 ‘애절하게 빌다’라는 뜻으로 감정적인 측면의 설명이고, ‘伏乞’은 ‘땅에 엎드리게 빌다’라는 뜻으로 양상 측면의 묘사이다. ‘哀乞’과 ‘伏乞’은 다 ‘부사어+동사’구조이고 수식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중국어에서도 한국어의 의태어와 같이 AXBX식으로 생성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現代漢語詞典》에서 나타나던 ‘有一得一(yǒuyídéyí)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있는 그대로’라는 단어, 또 사람들이 자주 쓰던 ‘有一說一, 有二說二(있는 그대로 말한다)’라는 말이 다 이런 형식이다. 여기서 ‘有’, ‘得’, ‘說’ 다 동사이고 대명사 ‘一’, ‘二’하고 ‘술목’구조화 되었다. 그리고 의미적인 면에서 ‘有’와 ‘得’ 및 ‘有’와 ‘說’은 선후순서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AXBX식 어휘들이 보통 의태어와 같은 기능을 가지 못해서 이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IV. 결 론

한국어는 표음문자이고 중국어는 표의문자로 각각 다른 문자 체계에 속하지만 음과 의미가 결합하여 구성하는 언어 자체로서 두 언어가 공

통점이 있다. 의태어는 사물의 모양을 묘사한 수식어로 어순은 상대적으로 발음이 쉬운데서 어려운 순서로 배열되는 특징이 있음을 알았다. 한·중 의태어에 이러한 발음의 경제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 중언어의 의태어는 각 언어의 모음과 자음의 배열 순서에 의거하여 생성한다.

중국어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중국어 의태어가 기존 어휘의 영향에 따라 생성된 규칙을 한국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문에 연구대상으로 삼은 XAXB형 의태어가 전체적으로 병렬구조이고 XA와 XB는 같은 주술이나 수식 혹은 술목 등 구조로 정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중국 의태어는 쌍음절 단어AB의 기초에서 형성되어졌기에 어순 또한 AB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국어의 의태어의 AX와 BX는 처음에 각자 독립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어의 발전에 따라 AX와 BX 중 일부분의 뜻이 소실되었거나 심지어 모두 소실되었다. 그 과정이 물론이고 이 결과도 증명하지 못하고 단지 추측만 할 뿐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AXBX식 의태어들은 조어능력이 강하거나 혹은 전체 단어의 의미와 가까운 부분이 AX로 된다. 또한 한국어 의태어 중 대부분은 한국어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 또한 적지 않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았다.

[참고문헌]

- 김중섭, 1996, <韓國語 擬態語 語源研究 方法論>, 高鳳論集, Vol.17
 ———, 1997, <類韻重複 擬態語의 意味構造 研究>, 論文集, Vol.26
 김홍수, 2003, <국어 파생 의태어근의 형태통사론적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배현숙, 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교수법 연구>, 이중언어학, Vol.31
 박철주, 2007, <신조 의태어의 실태와 문제>, 한국어학, Vol.35
 손달임, 2012, <현대국어 의성의태어의 형태와 음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안인숙, 2007, <의성어와 의태어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윤희원, 1993, <의성어의태어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생활3-2, 국립국어원
- 李癸玉, 1995, <擬音語·擬態語の意味論的小考>, 培花論叢, Vol.14
- 이기원, 2007,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한국문화사
- 이문규, 1996, <음성교체와 상징어의 어감 분화>, 어문학57집
- 이명강, 2010,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태어 대조 연구>, 대구대학교
- 이종훈, 1987, <의성·의태어 표현의 묘미>, 국어생활, Vol.- No.10
- 장 망, 2011, <한·중 신체 동작 의태어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 장언청, 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의태어 대비 연구>, 건국대학교
- 채 완, 2000, <국어 의성어 의태어 연구의 몇 문제>, 진단학보, Vol.- No.89
- 채 완, 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대학교출판부
- Zhang Zhen, 2009, <한·중 의성어 대조 연구>, 고려대학교
- 王元媛, 2010, <한중 의성어와 의태어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 蘇 聰, 2012, <韩中擬聲擬態詞對比研究>, 中國青島大學
-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詞典編輯室編, 1983, <現代漢語詞典>
- 劉月華·潘文娛, 1993, <實用現代漢語語法>,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 黃伯榮, 1996, <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Abstract〉

Native vocabulary is more basic and common words in every language system. As an important part of native vocabulary, mimetic words is the word group changed the other senses except auditory sense to segmental sound which can express human emotion and smoothly describe objects.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performance effects of language, Korean and China people use a lot of mimetic words in their daily life. Even in Chinese language, mimetic words is not as well-developed as Korean.

Many scholars have focused on the mimetic words, which a large number of related papers exist, because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whole language. Most of which, however, are only the research on phonology, significancy, sentence syntax, there is no evidence that word order exist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in both Korea and China, this thesis intend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vergences of word order in mimetic words.

주제어 : 의태어 유형 구조 어순 유사 관계

Key Words : mimetic words, type, structure, word order, similar relation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